

하루를 시작하며



조 미영 여행작가

1945년 태평양 전쟁 막바지 오키나와에서는 치열한 지상전이 벌어지고 20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한다. 군인, 군속은 물론 많은 수의 민간인들이 함께 희생되었다. 이에 오키나와 전투가 끝난 6월 23일이면 각자의 방식으로 추념행사가 진행된다. 지난 일요일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키나와 평화 기념공원은 우산을 쓴 채 꽃과 제물을 각병비 앞에 올리는 이들이 있다. 달랑 이름 하나 적혀 있는 각병비이지만 술을 뿌리고 쓰다듬으며 가신 이들을 추모하고 있다. 한국인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

오키나와의 눈물

진 각병비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든다. 오키나와 전투 당시 희생된 한국인 희생자 추도식을 위해서다. 행사의 주축은 일본 시민모임이다. 이들은 희생자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그분들의 가족을 찾아주는 일도 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미국인 희생자들을 위한 추도식이 진행되었다. 미군 헌병대의 호위를 받으며 미군 관계자들이 헌화를 하고 추도사를 한다. 오키나와 주둔 미군 사령관은 미국과 일본의 협력을 강조하며 평화와 자유를 기원한다는 말로 추도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12시가 되어 본 행사장에서 오키나와 전몰자 추도식이 거행되었다. 아베총리는 물론 내각료들이 함께 했다. 첫 추도식에서 오키나와현의회 의장 신자토 요네키치는 아베 정부 내각들이 영도분쟁을 야기하며 평화를 위협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전쟁의 위험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

도 평화 교육과 전쟁의 참화를 알리는 노력을 지속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후 평화선언을 위해 나선 오키나와현 다마키 데니 지사 역시 그동안 미군기지로 인해 야기된 각종 사건사고와 문제 등을 언급하며 미군 지지 확대를 반대하는 현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고 했다. 또한 남북의 평화구축 움직임에 찬사를 보내며 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사의 이런 발언들이 나올 때마다 추도식에 모인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지지의사를 보였다. 하지만, 아베총리의 발언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 피켓이 펼쳐지고 식당 곳곳에서 야유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다. 아베총리 역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평화를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던졌지만 막연한 평화를 향한 발언 앞에서 어느 누구의 호응도 없었다. 그 혼란 형식적

인 박수조차 나오지 않은 채 발언은 끝나고 행사는 마무리 되었다. 내 앞에 서서 아베 총리의 발언마다 "거짓말"이라고 외치던 60대 어르신은 오키나와의 최남단 헤노코 미군기지를 반대하고 있었다. 오키나와인들의 기억에 새겨진 전쟁의 참혹함은 이런 작은 섬의 어민들을 반전운동가로 만들고 있었다. 이전에 히로시마에서 만난 80대 월곡파해자 할머니 역시 반전집회 참석을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나선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치 경제적 위상을 위해 끊임없이 전쟁의 불씨를 만들면서도 그들의 입에선 거침없이 평화라는 단어가 튀어나온다. 전쟁은 가해국 피해국 모두 힘없는 국민들에게 잔혹일 뿐이다. 전쟁은 망각하는 순간 다가온다. 막연한 구호로서의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위해 깨어있는 시민의 눈으로 지켜보며 견제해야만 한다.

사설

목숨 바친 참전용사, 이렇게 대해도 되나

호국보훈의 말을 맞을 때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특히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미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매우 각별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싸우다 포로가 됐거나 실종된 미군을 끝까지 찾아내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사명으로 여깁니다. 똑같은 애기로 들릴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제주도내 참전용사들의 전사지(戰死地)조차 국방부의 비협조로 제대로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보훈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도내 16개 충혼묘지에 안치된 6·25전쟁 참전용사 3200기 중 558기(제주시 406기·서귀포시 152기)는 전사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망 장소가 확인되지 않은 참전용사의 묘비는 '00지구'로 표기된 겁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보훈청은 지난 1월 국방부에 00지구로 표기된 558기에 대한 정보 확인 요청 공문을 보내고 본격 묘비 정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6·25전쟁 69주년을 맞은 현재까지도 국방부의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참전용사가 어디에서 전사했는지 쉽게 알 수 있지만 국방부의 무성의한 태도가 문제입니다. 실제 지난 3월 제주에서 열린 6·25전쟁 참전용사 유

해발급 사업설명회에서 한 유족은 아버지가 어디서 숨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00지구'에서 전사했다는 '전사 확인증'을 국방부 관계자에게 보여주자 곧바로 전사 장소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보훈청은 급한대로 도내 참전용사 유족을 상대로 전사지 확인 작업을 자체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망 장소가 확인된 비석은 40여기에 그칠 정도로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도보훈청이 추진하는 참전용사 묘비 정비사업이 국방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거의 진전을 보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조국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참전용사에 대해 미국처럼 '극진한 예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족들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구체적인 장소를 알려달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일지 모르겠습니다. 참전용사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론 6·25 전사자의 유해 수습을 바라는 유족들의 간절한 소원도 얼마나 해결될지 의문입니다. 도내 6·25 전사자 2000명 중 1300명은 아직도 유해가 수습되지 않아 더욱 그렇습니다. 앞장서 받아들여야 할 참전용사에 대해 미온적으로 일관하는 국방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열린마당

관피아 근절 위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김 무원 제주도 청렴혁신담당관

김○○ 서기관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30년 넘게 몸담았던 공직에서 퇴직하며 그간 쌓아온 전문성을 살리고자 사기업체에 재취업했다. 정든 사무실을 떠나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로운 출발과 함께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과 역량을 마음껏 펼쳐 나갔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들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재산등록 의무를 이행하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사기업체(연간매출액 100억원

이상)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결과, 퇴직 전 취급했던 업무와 취업하고자 하는 업종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되는데, 이를 위반해 사전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취업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서기관은 이 같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안타까운 사례이다. 정부에서는 이른바 '관피아'를 근절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 등 공직윤리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므로, 만일 퇴직 후 재취업을 생각하는 공직자라면 미리미리 관련 제도를 잘 살펴봐야겠다. 아울러 도민 여러분께서도 주위에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퇴직공직자가 있다면 이 같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널리 알려 위와 같이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의견 수렴하되 해야 할 것은 반드시 집행"

원 지사 갈등 어려움 토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2공항과 폐기물처리장, 하수처리시설 등을 예로 들며 갈등으로 인한 도지사의 어려움을 토로.

원 지사는 25일 건국대에서 열린 '2019 한국학 세계대회'에서 주제강연을 통해 도지사로서 여러 가지 힘든 경험들이 많았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갈등"이라고 언급.

그러면서도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되, 무한 책임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은 반드시 집행해 나가겠다"는 발언을 통해 현안들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입장을 피력. 조상윤기자

서귀포시, 식중독 대비 훈련

○...서귀포시는 24일 색달동 소재 일반음식점서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 도 역학조사관,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서귀포보건소, 대형음식점과 함께 식중독 발생에 대비한 합동모의훈련을 실시.

훈련은 대규모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을 가정해 현장에서 원인·역학조사 등 기관별 대응역량 강화 차원에서 진행.

시는 "모의훈련을 통해 기관별 역량 강화와 영업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 문미숙기자

BTS섭외, 전국제전 흥행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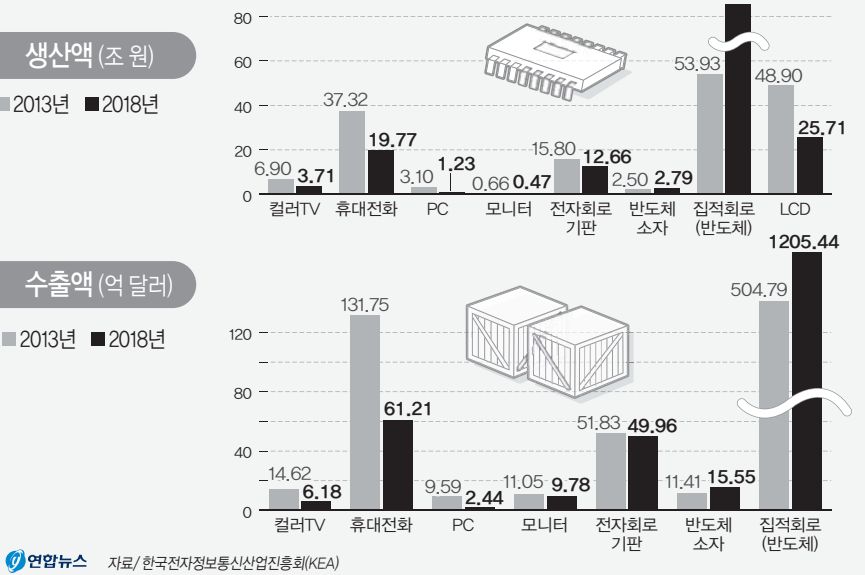
○...올해 제100회를 맞는 전국체육대회가 전 세계에서 K-POP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을 개최식 조대가수로 섭외해 흥행을 예고.

제주도체육회 관계자는 "서울시체육회가 2016년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막식 당시 관중석을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고민 끝에 BTS를 섭외했다"고 설명.

이 관계자는 또 "마침 해마다 국민을 위한 자선콘서트를 여는 BTS가 흔쾌히 승낙해 공연이 확정됐다"고 강조. 표성준기자

그래픽 뉴스

한국 주요 전자제품 생산·수출 추이



부고: 오순철(前 제주대학교 시설과장) 어머니 경주김씨 성호(향년 94세)께서 서기 2019년 6월 25일 오전 9시 40분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제2분향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전주이공 영식(향년 97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신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 6월 26일

evworld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1544-8236

한기림JK백도라지연구소: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목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 진흥원 판매장 등

계분 판매합니다. (배달 가능) 무항생제인증, HACCP인증 받은 자연전조한 계분(산란계)판매. 전 화: 064-796-6947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ONE-STOP SYSTEM. VOICE & 영상장비, NETWORK 설비,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하귀농협장례식장: 제주도 애월읍 애초로 405 (노형에서 10분 거리). 독립적인 5개의 고층객 분향실, 독립적인 상주휴게실 및 편의시설. T.798-8800